

전북도, 미래 성장판 넓힌다 2(題)

‘5극3특’ 특례 발굴 넘어 성과 중심 성장전략 모색

전북도는 22일 전주 왕지마을에서 도와 시·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극3특 국가정책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광역통합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전북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고, 확보한 특례의 실질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강연에서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자치가 지역 주도의 성장체계로 발전하기 위해 자치 입법권과 재정기반, 지역 맞춤형 산업특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의 강점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세길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자치의 차별성이 특례의 실질적인 성과에 달려 있다고 진단하고, 지역 트렌드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특례 발굴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권한·절차 중



심의 특례 설계와 지역 맞춤형 정책 연계, 전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특례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강연에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5극3특 국가정책에 따른 전북의 대응 방향과 특별자치도의 성장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특례 발굴과 입법을 넘어 실행과 성과 중심으로 특별자치 정책을 고도화하고, 3특 협력과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보, 지역 강점을 활용한 성장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략산업 연계 국제회의 유치 본격화

전북도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의 발굴과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전주 이비스호텔 등에서 국내외 학회·협회 및 국제회의의 업계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하는 ‘전북 전략산업 연계 국제회의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국제회의와 국제학술회의를 발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첫날인 21일에는 전주 모이장(유니크메뉴)에서 참가자 간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전북만의 특색 있는 행사 공간과 지역 콘텐츠를 소개하고, 국제회의의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향후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22일에는 전북의 MICE 인프라와 국제회의 유치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전문가

발표를 통해 전략산업과 국제회의의 유치의 연계 방안을 공유했다.

한양대학교 글로벌문화통상학부 운영해 교수는 글로벌 MICE 산업 동향과 국제회의의 유치 성공 사례, 개최지 선정 요인 등을 소개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 신창환 교수는 반도체 분야 국제학술회의의 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연구자·기업·산학연 네트워크 확대와 지역산업 연계 효과를 설명했다.

22일 오후에는 학회·협회 관계자와 도내 PCO(국제회의 기획업체) 간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제 회의의 전북 개최 가능성과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유치 가능성이 있는 행사를 발굴해 후속 유치 활동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단순한 지역 홍보를 넘어 전북의 전략산업과 국제회의를 연계하고, 유치 가능성이 있는 국제회의를 발굴해 실제 개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 퍼지컬AI 실증센터 전무…에타 면제 서둘러야”

중국훈련장1년새 70곳 이상 확대 박희승 “전북 로봇 실증센터 사업 2027년 예산안 반영해야” 촉구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중국이 퍼지컬AI 인프라를 국가 전략으로 삼아 1년 사이 3배 가까이 늘리는 동안, 우리나라는 국산 로봇과 핵심부품에 퍼지컬AI를 결합해 실제 환경에서 검증할 전용 실증센터를 한 곳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전북 K-로봇 퍼지컬AI 실증공유센터 구축 사업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2월 새만금 투자협약을 통해 총 9조원을 투자하고, 이 가운데 4,000억원을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에 투입해 2029년 준공,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실증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K-로봇 퍼지컬AI 실증공유센터는 국산 로봇·핵심부품의 실환경 검증부터 통합 실증, 시생산 연계,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공동 활용형 인프라로, 전북(새만금·전주)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사업비 2,389억원(국비 1,67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산업통상부가 요구한 2027년 예산 400억원에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추경 기획용역비 5억원으로 연말까지 기획용역만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중국 퍼지컬AI 실증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로봇에 실환경 학습데이터를 공급하는 퍼지컬AI 훈련장을 2025년 말 24곳에서 2026년 6월말 70곳 이상으로 늘렸고, 18개 성급 지역에 46곳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염원해 온 숙원사업이다. 주민들은 단순한 도로 건설을 넘어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관광·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고창군은 사업 주관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해 실시 설계 등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박희승 의원

하로 있는 시설로 성격이 다르지만, 중국은 두 축 모두를 국가 인프라로 키우고 있는 반면 우리는 기존 로봇 실증센터는 있어도 퍼지컬AI 기반의 실증센터는 아직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이 ‘데이터가 산업 표준을 좌우한다’는 데이터 주권 논리로 전국 단위 확장을 밀어붙이는 만큼, 국내 공공 실증 인프라가 없으면 우리 로봇기업의 학습데이터·검증 역량이 해외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로봇산업은 핵심부품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해 상용화까지 연계하는 공용 인프라가 핵심이고, 현대차 동차도 실증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개별 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고가의 전문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사업비 2,389억원 규모 사업이 2027년 예산에 반영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신속히 밟아 국회 심사 단계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요건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중국은 1년 사이 훈련장을 3배로 늘리고 시설 한 곳에 1,400억원을 쏟아붓는데, 우리는 민간이 9조원을 투자하는 새만금에 퍼지컬AI 실증센터 하나 없이 기획용역만 하고 있다”며 “현대차 양산 시점인 2030년에 맞추려면 2027년이 사실상 마지막 출발선인 만큼, 에타 면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국회 예산심사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노을대교 건설 가시권…고창·부안 10분 생활권 ‘성큼’

2028년 착공 목표지반조사시추시작 고창 해리~부안 변산 8.87km 연결 이동시간 70분서 10분으로 단축 서해안 해양관광권 지역 활력 도모

고창군 해리면과 부안군 변산면 사이의 바다. 노을대교 사업지 현장에 지반조사를 위한 구조물이 세워지면서 고창의 수십년 숙원사업이 가시권에 진입했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노을대교)’ 사업이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해상교량과 접속교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의 일환으로 시추 구조물이 세워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해상·육상 시추조사는 지난 7월부터 진행됐으며 11월까지 지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을대교는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중으로,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에서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까지 총



“수십년 숙원사업 가시권” 노을대교 건설사업 본격화

고창군 해리면과 부안군 변산면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사업 현장에 교량 기초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시추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사진=고창군>

연장 8.87km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양방향 2차로 도로와 해상교량 3개소, 육상교량 1개소 등 주요 구조물이 계획돼 있다.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고창과 부안 간

이동시간이 기존 약 70분에서 약 1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아울러 국도 간 연결체계를 완성하고 새만금지구와 변산반도국립공원, 세계자연유산 고창

갯벌, 선운산도립공원 등을 연계해 서해안 해양관광권 발전에도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노을대교는 고창과 부안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하고, 2028년 1월 착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대응과 지원을 이끌어갈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현재 실시설계와 관련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조속한 착공과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북도 ‘도정공감의 날’ 첫 개최…소통 내실화

도지사·직원 900여명 토크콘서트
기존 ‘소통의 날’ 개편 첫 행사…
매월 행사 격월 전환해 내실 강화
도정 현안·조직문화 개선 의견 공유

전북도는 22일 도청 공연장에서 이원택 도지사와 직원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도정공감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 ‘소통의 날’을 ‘도정공감의 날’로 개편한 첫 행사다. 토크콘서트는 ‘함께 묻고, 함께 답하며, 다음을 실행하다’를 주제로 도지사와 직원들이 도정 현안과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며, 이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가자는 취지를 담았다.

특히 직원들이 도정 현안 대응과 민원처리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매월 개최하던 행사를 격

월 개최로 전환하고, 소통의 내실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지사님을 알아가는 시간’, ‘청원과의 대화’, ‘청원들에게 한마디’ 순으로 진행됐다.

‘지사님을 알아가는 시간’에서는 이원택 도지사에 대한 직원들의 소소한 궁금증을 나누며 도지사와 직원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이어진 ‘청원과의 대화’에서는 민선 9기 중진 추진 과제, 5급 승진자 파견 제도 개선, 신규 공무원을 위한 조건 등 직원들의 사전 질문에 답변하고, 현장 즉석 질문과 QR코드 질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업무 방식의 차이를 탕수육 ‘떡볶이’와 ‘부먹’에 빗대어 조직 내 협업과 조화의 방법을 묻는 재치 있는 질문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도정 현안부터 일상적인 관심사까지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도지



2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함께 묻고, 함께 답하며, 다음을 실행하다”를 주제로 열린 10월 도정공감의 날 행사에 이원택 도지사가 도청 공무원들과 도정 현안과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와 직원들이 한층 가까이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정공감의 날 운영을 통해 민선 9기 체감성장을 뒷받침할 피지컬 AI, 로봇 등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직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혁신도시, 지역물품 구매 2년 연속 전국 1위

도 혁신도시상생 실무협의회 개최
전북 혁신지역물품 구매액 1144억
공공기관 발전계획 추진 현황 점검

전북도는 22일 전북혁신도시 테크비즈센터에서 국토교통부와 이전공공기관, 전주시, 완주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혁신도시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2월에 이어 열세 번째로 열린 이번 협의회는 이전공공기관별 2026년 지역발전계획 추진 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지역물품 우선구매 확대 등 지역 상생방안과 도정 발전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2018년부터 매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육성, 지역주

민 지원, 유관기관 협력, 기타 사업,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6개 분야에서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2026년 지역발전계획 추진 현황과 기관별 건의·홍보사항을 공유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 기부 캠페인 ‘아름다운 하루’를 소개하며 기부물품과 지역생산물 소비 촉진을 홍보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산업계의 인공 지능(AI) 활용 사례와 공공기관 AI 도입 방향을 다루는 강연 참여를 안내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공단 앞 정류소 키오스크 설치와 서울남부터미널행 시외버스 정차를 요청하는 등 혁신도시 교통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건의했다.

지역발전계획 중 지역물품 우선구매 분야에서는 전북혁신도시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전국 혁신도시 중 1

위를 기록했다. 2024년에는 1,129억 원 규모의 지역물품을 구매해 우선구매율 27.5%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도 우선구매액 1,144억 원, 우선구매율 30.1%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이날 참석 기관들은 지역물품 우선구매 확대 전략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도를 비롯한 지자체 홍보 및 건의사항도 이어졌다. 도는 2차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전북 유치와 정착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전주시는 공영자전거 ‘꽃실이’ 연계 ‘2026 혁신도시 자전거 타는 날’ 행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완주군은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당부했다.

도 유관기관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전북개발공사는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협력사업’ 참여를 요청했으며,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에서는 생태길 해설사와 함께하 는 21km ‘삼천리길 걷기’ 대회 참여를 독려했다.

김용수 전북자치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계획 6개 분야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더욱 긴밀한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 대표도서관 장서 확충 지정기부 시작

2028년 개관…도서비 5천만원 모금
도민 참여 지식·문화 기반 조성
한국가스기술공사서 홍보 활동도

전북도는 2028년 개관 예정인 전북 대표도서관의 장서를 확충하고 도민의 지식·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 고향 서가 채우기’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의 모금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내 고향 서가 채우기’는 현재 건립 중인 전북 대표도서관에 비치할 도서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기부자가 문화 나눔에 직접 참여해 전북의 지식을 보전하고 미래 세대와 연결한다는 취지로 추진된다. 목표 모금액은 5,000만 원으로, 전북 대표도서관의 도서 구입에 쓰일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모금을 시작한 ‘가정위탁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과 ‘장애·고령 보훈대상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이어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세 번째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이다.

고향사랑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소요 예산 등을 직접 확인하고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방식이다. 일반 고향사랑기부와 마찬가지로 기부자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담례품 혜택도 동일하게 제공된다.

아울러 도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일반기부 사업으로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청소년 상담공간 조성사업’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운전자 패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도내 시·군과의 상생 효과를 높이기 위한 도·시군 공모사업으로 여성소상공인 점포에 CCTV와 SOS 비상버튼 설치를 지원하는 ‘익산시 여성 1인 소상공인 점포안전 지원사업’,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이동을 지원하는 ‘남원시·장수군 병원동행 공공이동서비스 기반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는 22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기술공사를 찾아 임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가정위탁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장애·고령 보훈대상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내 고향 서가 채우기’ 등 전북형 지정기부 사업을 홍보하고 현장 기부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은지 기자

도 수산인·공무원 합동 워크숍…어촌 활로 모색

전북도는 22~23일 이틀간 부안군 농협생명 변산수련원에서 수산인과 공무원 등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전북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실정을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과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22일에는 수산정책 성과와 추진 방향, 내수면양식의 현실과 미래, 전북 해양환경의 가치창출 전략 등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수협과 어업인단체, 내수면협회, 수산 관련 공

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며 지역 수산업과 어촌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전북내수면양식연합회 김철호 회장이 수산정책 성과와 추진 방향, 내수면양식의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북연합회 정영문 회장은 ‘섬마을에서 김양식 외길 40년’을 주제로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전북연구원 천정호 책임연구원은 ‘전북 해양환경의 가치창출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23일에는 부안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를 방문해 소비 트렌드에 맞춰 품소젓갈을 활용한 어간장과 새로운 소스류 개발 사례를 살펴본다. 개별 소공인이 구축하기 어려운 제조·포장 설비와 품질관리시스템을 공동 활용하는 ‘공유주방’ 운영 현장을 둘러보고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김철대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물국장은 “이번 합동 워크숍을 통해 수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윤준병 “유기동물 절반이 보호소에서 폐사”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구조된 뒤에 새 가족에 입양되는 동물은 25%에 수준에 그치고 50% 정도는 동물들이 보호소 안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인도적 처리)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6년 9월 유기동물 처리건 수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 자료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 9월까지 구조된 유기동물은 총 38만 5,010마리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구조된 유기동물은 연도별로 △2023년 11만 3,072마리, △2024년 10만 6,824마리 △2025년 9만 5,685마리로 매년 10만 마리 안팎의 유기동물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구조된 전체 유기동물 중 입양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는 비율은 매년 23~25%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 연도별 입양 비율은 △2023년 24.2%(2만 7,343마리), △2024년 23.5%(2만 5,136마리) △2025년 25.6%(2만 4,528마리), △2026년 9월 25.0%(1만 7,355마리)에 불과했다. 반면 자연사와 안락사를 합친 비율은 연평균 43.4%(16만 7,179건)로 사실상 보호센터에 들어온 동물 2마리 중 1마리가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동물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구조보호비 지원예산(12억 6,000만 원)을 통한 수해동물 수는 6만 마리에 불과하다. 매년 약 10만



윤준병 의원

마리가 구조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체 구조동물의 60% 정도만 지원을 받는 셈이다.

입양 활성화

양비 지원사업은 과리가 더욱 심하다. 매년 약 2만 5천 마리 안팎이 입양되고 있으나, 정부의 입양비 지원 물량은 2026년과 2027년 정부안 모두 ‘9,720마리(7억 2,900만 원)’로 동결되어 있다. 전체 입양 동물의 약 38%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규모로, 나머지 60% 이상의 입양 가정은 정부 지원 없이 입양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일선 동물보호센터의 과부하도 한계에 달했다. 2025년 기준 전국 동물보호센터는 236개소로, 연간 발생 구조동물(9만 5,685마리)을 감안하면 센터 1개소당 평균 405.4마리를 떠안고 관리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다. 특히 2025년 전체 236개소 중 시·군 직영 센터는 87개소(36.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위탁시설로 나타나면서 지자체 직영을 통한 공공 관리·보호의 질적 담보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존재한다.

윤 의원은 “동물보호센터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보호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지자체 직영 보호센터 확충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구조·보호 체계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고창군 공고 제2026-1860호

「고창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고창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고 창 군 수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고창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음면 덕암로 77-8번지 일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내)

다. 규 모 : 31,614㎡

라. 제 안 자 : (가칭)고창바이오에너지(주)

마. 승인기관 : 고창군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목적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나. 기 간 : 2026. 10. 19. ~ 2026. 11. 18.

다. 공람장소 :

1) 고창군 : 고창군 환경에너지과, 공음면주민행복센터, 대신면주민행복센터, 영광군 환경과

2) 정보통신망 : 고창군 홈페이지 (www.gochang.go.kr), 영광군 홈페이지 (www.yeonggwang.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공고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까지

나. 제출방법

1) 당해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공람장소에 서면(書面)으로 제출
3)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eiass.go.kr/) 의견 제출

4.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개최일시 : 2026. 11. 05.(목요일) 14:00 ~

나. 개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음면 공음길 35(공음면주민행복센터),

다. 주요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내용

5. 기타사항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및 공고문 등은 고창군청 및 영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환경에너지과 환경시설팀(063-560-2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2027년 통합돌봄 실행 엔진 풀가동

11월9일 통합지원협의회 회의 의료·돌봄 전문가 등 한자리에

전주시가 '전주형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내년도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오는 11월 9일 시청별관 회의실에서 의료·요양·돌봄 등 분야별 대표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통합지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통합지원협의회는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평가, 통합지원 시책 추진, 관계기관 간 연계·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구이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6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통합돌봄 사업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관련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및 자문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유관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더 견고

히 다지는 한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돌봄 정책의 완성도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1월 중 2027년도 통합돌봄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책임질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방문운동지도 △도시락 등 영양지원 △대청소, 방역, 가사지원 △낙상예방작업치료 △주거환경개선 △장애인 특화서비스 등 전주시만의 차별화된 돌봄 정책인 '전주시 특화사업' 분야다.

시는 역량 있는 전문 기관을 선발해

내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박은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의료, 요양, 돌봄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통합지원협의회와 내년도 특화사업 수행기관 모집을 차질 없이 진행해 빈틈없는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단 한 명의 시민도 돌봄 공백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실행력 있는 전주형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 지역기업 국방시장 진출 지원

22일 육군 35사단 전시실에서 우수품목 전시·설명회 열려 지역기업 10개사 참여

전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에 보유한 우수 기술과 제품이 국방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나섰다.

시는 22일 육군 제35보병사단 전시실에서 군 관계자와 전시 참여기업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력지원체계 우수품목 전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 설명회는 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전북국방벤처센터(센터장 최석구)가 주관했으며, 전북국방

벤처센터 협약기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과 제품을 군 관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실제 군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전시 참여기업은 전주 소재 기업인 ㈜코어솔루션과 ㈜한실어패럴, ㈜시엔와이더스, ㈜이오렉스, ㈜편잇, 비케이시 등을 비롯한 전북지역 10개 기업이다.

참여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탄소섬유 기반 스텔스막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문진 시스템 △군용 기능성 의류 △생체신호 감지 기반 병영안전 시스템 △이온화식 수처리기 △AI·확장현실(XR) 기반 전술훈련 플랫폼 등 다양한 군 활용 기술 및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참여기업의 제품 전시와 더불어 35사단 지휘부를 대상으로 한 제품 설명회도 마련돼 참여기업과 군 관계자가 제품의 주요 기능과 성능, 군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민간 기술을 군의 수요와 연결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물론, 장비의 건강관리와 안전 확보, 군 시설의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전술훈련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기업 제품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에 그 가능성이 향후 군 상품 및 사업과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전북국방벤처센터와 한

층 더 협력을 공고히 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민간의 우수 기술이 국방 분야의 실질적인 수요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제품 발굴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및 판로 확대까지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과 제품이 국방 분야의 새로운 수요를 만나면 기업의 성장과 지역 방위산업 생태계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국방벤처센터와 함께 지역기업의 국방시장 진출 기회를 넓히고 경쟁력 있는 국방 분야 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수어영상으로 청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높여

시정소식·생활정보 수어영상 연간 60편 제작 추진 10월 현재 43편 제작 완료

전주시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장벽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정 주요 소식과 각종 생활정보를 수어영상으로 제작하고 있다.

시는 올해 시정 소식 수어영상 40편과 생활정보 수어영상 20편 등 총 60편을 제작·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시정소식 28편과 생활정보 15편 등 총 43편을 제작했으며, 연말까지 남은 영상을 제작해 연간 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주 1회 제작되는 시정소식 수어영상에는 전주시의 주요 행사와 시정 동향, 사회복지 관련 소식, 재난·안전 정보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시정 소식 수어영상 40편과 생활정보 수어영상 20편 등 총 60편을 제작·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전주시>

특히 수어와 함께 자막, 사진 자료 등을 활용해 청각장애인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격주로 제작되는 생활정보 수어영상은 건강, 문화·예술, 경제, 환경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수어로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제작된 시정소식 수어영상과 생활정보 수어영상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과 유튜브에 게시돼

/정혜민 기자

아동부터 성인까지 맞춤형 교육 시민강사 전문성 강화도 병행

전주시가 탄소중립 시민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 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총 566회에 걸쳐 운영된 '2026년 탄소중립 시민교육'을 통해 시민 2만 6660여 명에게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렸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2만7000명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탄소중립 시민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주시 탄소중립 시민교육은 미취학 아동부터 초·중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찾아가는 탄소중립 시민강사 교육과 탄소중립 아동극, 시청각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시민강사가 교육 현장을 직접 방

문하는 '찾아가는 탄소중립 시민교육'의 경우 생애주기별 12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올해 총 9000여 명이 참여했다.

시민강사들은 교육 대상별 눈높이에 맞춘 강의와 참여형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탄소중립 아동극'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자라나는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부터 현

재까지 아동 1800여 명이 관람했다.

이와 함께 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민강사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6월에는 시민강사 보수교육을 실시했으며, 최근에는 시민강사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는 등 강사들의 전문성과 현장 교육 역량을 높이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관련 교육 교안 개발과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시민교육의 내실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완산도서관, 이일청 작가 개인전 '바람의 땅'

전주시는 오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완산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전북 출신의 중진 서양화가 이일청 작가의 개인전 '바람의 땅'을 개최한다.

전주 출신인 이일청 작가는 서해대학 교수와 전북미술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

며 지역 미술 발전에 앞장서 왔다. 또, 한국·세네갈 교류전, 아세아 현대미술전 등 다수의 국내외 단체전과 17회의 개인전을 거치며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18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에서는 작



가가 남원 아영면 작업실에 머물며 자연과 어우러진 생활 속에서 관찰하고 포착해 낸 대표작 '바람의 땅'을 비롯한 서양화 작품 2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금요일은 휴관일이다.

/정소민 기자

‘모아-JOB’ 청년 구직자 호응 속 ‘순항’

공공기관 채용 정보 한눈에 시행 이후 유입 꾸준히 증가

전주시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부문 채용 정보 통합 제공 서비스 '모아-JOB'이 든든한 취업 길잡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전주청년온라인플랫폼 '청정지대'(youth.jeonju.go.kr)에서 운영 중인 '모아-JOB'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총 1394명 규모의 전주시 산하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채용 정보를 통합 제공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시행 이후 꾸준한 유입 증가세를 기록하며 한 달 평균 조회수가 약 2000명에 이르고, 누적 조회수 약 2만 회를 기록하는 등 전주시 청년들을 위한 주요 취업 정보

창구 역할을 톡톡히 했다.

'모아-JOB'은 청년들이 공공부문 채용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 기관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기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이다.

시는 잡알리오·고용24·사람인 등 민·관 구직플랫폼과 '청정지대'와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청정지대' 방문으로도 주요 플랫폼에 올라오는 전주시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정보 사각지대 없이 폭넓은 취업 기회를 탐색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진행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정신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전주시보건소 도지사 표창 수상

전주시가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잘 돌본 도시로 평가됐다.

시는 22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사업 실무자 워크숍'에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시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해 온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

실제로 시는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전주시독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전주시민과 정신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 및 고위험군 발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치료연계 △정신건강 위기대응 △정신질환 인식개선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경찰·소방·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탄소기업 제품 신뢰성·경쟁력 높인다

제품 표준·인증 활용전략 설명회

전주시가 대한민국 탄소기업들의 제품 신뢰성 확보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결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22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술교육동에서 탄소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시와 산업통상부,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업비 지원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 김용만)이 수행하는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론회'를 위한 토론회로 마련됐다. 그동안 탄소제품에 대한 표준·인증 제도의 부재로 탄소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탄소기업들에 대한 표준 개발·인증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탄소기업 제품의 표준개발부터 제품 성능 검증, 시험·인증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지원방안이 소개돼 향후 기업의 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시는 국가·단체표준 수조사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 개발 수요와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향후 기업 수요 중심의 표준·인증 지원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도시농업 시민열린강좌' 참여자 모집

현재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거나, 새롭게 키워보고 싶은 전주시민들을 돕기 위한 도시농업 강좌가 운영된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송전3동 주민센터 1층 다목적실에서 '2026년 도시농업 시민열린강좌'를 개최한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시민들이 가정에서 실재식물을 건강하게 키우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

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는 도시농업 시민열린강좌 참여자 50명을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9일 오후 3시까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새소식'란의 '도시농업 시민열린강좌·실내식물 건강하게 키우는 관리방법 참여 안내' 게시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김은지 기자

전북 체류인구 감소… 54.7% ‘하루 체류’

인구감소지역 10곳 중 7곳 체류인구 감소 생활인구 확대 전략 필요

전북지역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가운데 7곳에서 체류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체류인구를 확보하고도 감소세를 보였고, 순창군은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임실·진안·고창은 소폭 증가하는 등 지역별 차이가 뚜렷했다.

특히 체류인구 규모와 재방문율, 지역 내 소비 비중에서도 시군별 격차가 확인되면서 확실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5년 전북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0개 인구감소지역의 연평균 생활인구는 약 254만 명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등록인구는 약 49만 명, 체류인구는

약 205만 명으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4.2배에 달했다. 그러나 체류인구 역시 전년보다 1.7% 줄었다.

시군별 체류인구는 부안군이 약 2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읍시 27만 명, 남원시 26만 명, 김제시와 고창군이 각각 25만 명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체류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도 감소세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부안군은 전년 대비 3.8% 감소했고 정읍시는 1.4%, 남원시는 0.8%, 김제시는 1.7% 줄었다.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순창군으로 5.8% 감소했다. 이어 장수군 3.9%, 부안군 3.8%, 무주군 3.7% 순이었다.

반면 임실군은 1.1%, 진안군은 1.0%, 고창군은 0.3%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체류인구의 방문 특성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김제시는 최근 3개월 이내 재방문율이 53.0%로 전북 평균 35.3%를 크게 웃돌았다.

정읍시도 43.8%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고창군은 33.4%로 전북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체류기간은 김제시가 월평균 4.3일로 가장 길었고 정읍시 3.5일, 장수군 3.2일 순이었다.

체류일당 평균 체류시간은 장수군이 12.6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정읍시 12.5시간, 남원시 12.4시간이 뒤를 이었다.

외부 방문객의 유입 구조도 달랐다. 고창군은 체류인구 가운데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이 75.6%로 높았고 남원시도 74.7%에 달했다. 반면 김제시는 39.1%로 나타나 지역별 방문객의 유입 범위에 차이를 보였다.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카드 소비에서도 격차가 컸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전체 카드 사용액 가운데 체류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1.2%였으나 무주군은 50.1%, 임실군은 45.5%에 달했다.

반면 정읍시는 22.3%, 남원시는 26.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체류인구 규모가 큰 지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외부 방문객의 소비 비중까지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체류인구의 실제 방문일수와 소비 형태가 지역마다 다른 만큼 카드 사용액 비중만으로 지역경제 기여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도내 체류인구의 월평균 체류일수는 3.0일, 체류일당 평균 체류시간은 11.7시간이었다. 1일 체류자 비중은 54.7%에 달했고, 숙박자 중 1일 숙박 비중도 61.1%로 단기 체류 중심의 구조가 확인됐다.

이번 통계는 전북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정책이 단순한 방문객 수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안·정읍·남원 등 체류인구 규모가 큰 지역은 감소세를 반전시킬 방안을, 순창·장수·무주 등 감소율이 높은 지역은 방문 수요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김제의 높은 재방문율과 무주·임실의 높은 체류인구 소비 비중 등 지역별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체류기간 연장과 지역 상권 소비로 연결하는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준호 기자



<사진=전북농기원>

전북농기원 “논콩 수확 후 관리 철저히” “건조·저장 핵심”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고종철)은 10월 잦은 강우로 논콩 수확 지면이 예상돼 고품질 콩을 생산하기 위한 수확 후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10월 중순 전북의 평균 누적 강수량은 42.2mm로 평년대비 28mm 정도 많았으며, 평균기온은 2℃ 이상 높았다. 이 같은 고온·다습한 환경은 꼬투리 갈변 등 수확 시기 지연에 따른 종실 품위 저하를 유발한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수확 적기 판단과 건조·저장 단계의 체계적인 관리가 고품질 콩 생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수확 적기는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잎이 대부분 떨어지고 꼬투리의 80~90%가 갈변된 뒤 7~14일이 알맞다. 이 시기 종실의 수분함량은 18~20% 수준으로, 콤바인 수확 시에는 13~15%가 적당하다.

과속 상태에서 수확하면 꼬투리 갈라짐과 탈립이 심해지고, 반대로 조숙 수확은 수분이 많아 탈곡 효율이 떨어진다.

예취 수확 후에는 2~3일간 자연 건조해 탈곡하는 것이 좋으며, 수분함량이 17% 전후일 때 탈곡이 가장 원활하다. 탈곡기의 회전 속도는 300~400rpm이 적당하며,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종실이 파손되고 느리면 탈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건조는 종실 수분함량이 13% 이하가 되도록 해야 장기 저장 시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다. 햇빛 건조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 건조기를 사용할 때는 30~40℃의 저온 풍건이 권장된다.

또한 장기 저장(1년 이상) 시에는 저장고의 온도를 4℃, 상대습도 45~50%, 종실 수분함량은 1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조영민 연구사는 “10월 수확기에 비가 잦아 콩 수확 후 건조·저장 관리를 제대로 해야 품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수확 전후 단계별 관리 요령을 준수해 고품질 논콩 생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컨벤션센터 건립 “지역업체 참여 확대해야”

수주 물량 불투명 현장 설명회 개최

3,700억 원 규모의 전주컨벤션센터 건립공사가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돌아갈 실질적인 수주 물량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전주시와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협의에 나섰으나 구체적인 수주 목표나 공종별 발주 규모 등이 제시되지 않아 선연적인 상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지난 21일 전주컨벤션센터 건립공사 현장사무소에서 전주시와 롯데건설, 도내 전문건설업체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전문건설 활성화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옛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서 추진 중인 전주 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 개발사업의 핵심 시설인 전주컨벤션센터 건립공사에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롯데건설 본사 외주부문장과 실무담당자들은 공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협력업체 등록 절차,

공사 참여 기준, 지역업체 우대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전주시는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수 전문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과 참여 확대, 지역 자재·장비의 우선 사용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작 지역 건설업체가 가장 관심을 갖는 구체적인 수주 목표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 공종별 발주 규모 및 일정 등은 보도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지역업체 우대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지도 명확하지 않다.

협력업체 등록은 공사 참여를 위한 절차일 뿐 수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업체가 협력업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더라도 실제 입찰과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가 극심한 수주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3,70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 지역업체에 얼마나 실질적인 일감을 제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철현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은 “전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이번 사업에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함께 힘을 보태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근홍 회장은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이 수주물량 부족과 상호시장 허용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요청했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가 실제 계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행 방안이다.

지역업체가 참여 가능한 공종과 발주시기, 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공사 진행에 따른 지역업체 수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있다.

전주시 역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요청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롯데건설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과 계약 원칙의 범위에서 실효성 있는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자재·장비 사용과 지역 인력 고용도 마찬가지다. 우선 사용을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구매·계약·고용 실적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준호 기자

농진청 ‘국제 토종돼지 학술대회’ 개최

품종 개량 등 산업적 활용 방안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이 한국동물유전종축학회, 제주대학교와 공동 개최하는 ‘제8회 국제 토종돼지 학술대회’가 22일 제주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소에서 개막, 24일까지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각국 토종돼지의 고유한 유전적 특성을 보존하고, 품종 개량과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등 산업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 일본, 대만 등 8개국 관련 연구자 및 학회 회원 등 전문가 80여 명은 국제 토종돼지 관련 연구 성과와 각국 사례를 공유한다.

주요 강연에서는 스페인 이베리코 돼지의 생산 체계, 제주 재래 흑돼지를 교배해 개발한 품종의 유전적 특성과 개량 연구, 일본 아구 돼지의 유전자원 보존 기술 등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흑돼지의 성장·육질 특성과 유럽 토종돼지의 보존·활용 사례도



<사진=농진청>

이와 종합 토론에서는 토종돼지 유전자원의 보존과 활용, 유전체 기반 개량 기술의 발전 방향, 고품질 돈육 생산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각국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토종돼지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와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의 의지를 다짐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유동조 부장은 “토종돼지는 고유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소중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우리 축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자산”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국내 토종돼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제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 가축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첨단 유전체 기술을 활용한 산업적 활용 연구에 매진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김제시, 맥류 적정 파종량 준수와 배수로 정비 당부

김제시농업기술센터가 밀과 보리 등 맥류의 본격적인 파종기를 맞아 안정적인 생산과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적기파종과 파종 전후 포장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22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맥류는 파종 시기에 따라 겨울나기 전 생육과 이듬해 수량이 달라지므로 알맞은 시기에 파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일찍 파종하면 겨울나기 전 생육이 지나치게 진행돼 어린 이삭이 저온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너무 늦게 파종하면 뿌리 발달과 새끼치기가 충분하지 못해 월동과 수량 확보에 불리하다.

김제 지역이 속한 남부지역의 맥류 파종 적기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다. 농가에서는 벼와 콩 등 앞그루 작물의 수확 일정과 토양 수분 상태를 고려해 적기에 파종할 수 있도록 종자와 농기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김영희 기술보급과장은 “맥류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기본적인 재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며 “토양 관리도 병행해 다음 해 벼농사의 개씨 무늬병 피해 예방에도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제=윤봉기 기자

신장식 의원, 수입란 사육환경 확인 없어

관리기준 형평성 점검해야

정부가 국내 산란계 농가에는 사육면적을 50% 확대하도록 요구하면서 정작 국민 세금으로 수입한 계란에 대해서는 기존 사육기준 충족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양계농가에는 시설 개선에 따른 부담을 지우면서 수입계란에는 사육환경 검증 절차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입된 신선란은 약 1억3,324만 개에 달한다. 정부가 편성한 수입사업 예산은 축산발전기금 1,219억3,100만 원으로, 정산 전 금액이다.

미국 15곳과 브라질·태국 각 1곳 등 해외 작업장 17곳에서 수입된 계란에는 모두 사육환경변호 ‘4번’이 표시됐다. 그러나 실제 생산농장의 사육면적을 확인한 정부기관은 없었다.

국내 산란계 농가는 마리당 0.05㎡였던 기존 케이지 사육면적을 0.075㎡로 확대하는 기준에 맞춰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이는 마리당 사육공간을 50% 늘리는 것으로, 기존 사육 규모를 유지하려면 시설 확충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정부는 2027년 8월까지 자율적 이행관리 기간을 두고 있으며, 같은 해 9월 이후 기존 케이지에서 생산한 ‘4번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난각번호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반면 수입계란은 기존 4번 표시의 전제인 마리당 0.05㎡ 기준을 충족했는지조차 확인자료가 없는 상태다.

특히 미국 계란생산자단체(UEP)의 사육 지침은 백색 산란계의 최소 사육면적을 마리당 약 0.043㎡까지 허용한다. 국내 4번 기준보다 약 14% 좁다. 실제 수입 농장이 이 기준으로 사육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내 기준에 미달하는 사육환경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기관들의 답변에서도 검증 공백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사육환경 증빙서류가 법정 제출서류가 아니라며 표시의 무자 책임하에 번호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aT 역시 사육방식과 사육면적은 수입요건이 아니어서 관련 확인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농식품부도 수출국 사육환경 검토자료와 식약처 협의자료는 물론 별도의 내부·법률검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aT는 수입계란의 무게와 산란일, 유통기한, 냉장 보관조건 등을 구매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도 사육 방식과 사육면적은 계약조건에서 제외했다.

계란의 크기와 신선도는 관리하면서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사육환경의 적정성을 확인할 근거는 확보하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관리 방식은 전복을 비롯한 국내 산란계 농가와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진다. 국내 농가에는 강화된 사육기준에 따른 시설 투자를 요구하면서 수입계란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생산자 간 규제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장식 의원은 “국내 농가에는 계란 안전을 이유로 0.075㎡ 기준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정작 국민 세금으로 들여온 수입란은 실제 사육환경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실제 수입농장이 4번 기준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수입계란의 생산단계 검증과 정부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국내 산란계 사육기준 강화가 추진되는 만큼 수입계란에도 표시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생산농가와 수입계란 사이의 관리기준 형평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준호 기자

전북 직업계고 학생 6명, KAI 취업 ‘눈앞’

채용연계 직무교육
과정 최종 선발...
맞춤교육 이수 후 채용



전호성 교육감

전북 도내 직업계고 학생 6명이 국내 대표 항공우주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취업을 눈앞에 뒀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4명, 강호항 공고등학교 2명 등 총 6명이 'KAI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에 최종 선발됐다. 두 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합격자를 냈으며, 올해 KAI가 전국 직업계고에서 선발한

총 50명 가운데 12%를 차지했다. 이번 선발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추진하는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기업 맞춤형 교육을 수료한 학생을 채용으로 직접 연결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장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주 동안 아세아항공직접

전문학교에서 항공 실무 중심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뒤 KAI에 채용될 예정이다. 전호성 전북교육감은 "전공 실습과 역량 강화에 매진해 온 학생들이 항공우주 분야 대표 기업에 선발돼 값진 결실을 맺었다"며 "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살려 우수 기업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직업교육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이남호 전 교육감 후보, 공소청 송치 '기자 매수 혐의'



이남호

선거를 앞두고 우호적인 보도를 대가로 기자에게 금품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남호 전 전북교육감 후보가 경찰 수사 끝에 공소청에 넘겨졌다. 익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로 이 전 후보와 선거캠프 전 공보담당자 A씨, 금품을 수수한 기자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기사 작성을 대가로 B씨에게 현금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후보의

선거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이 전 후보는 SNS를 통해 "공보담당자와 기자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해당 관계자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 후보 캠프 측이 금품을 제공한 뒤 B씨가 실제로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최성민 기자

원광대·군산대, 연구·기술혁신 지원 강화 2(題)

원광대 '세계 상위 2% 과학자' 10명 선정

원광대학교 소속 교수진이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연구팀과 글로벌 학술 출판사 엘스비어(Elsevier)가 발표한 '2026 글로벌 상위 2% 세계 과학자'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스코퍼스(Scopus) 학술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문 피인용 수, h-지수, 공저자 보정 지표 등을 종합 산출해 전 세계 174개 세부 학문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생애 업적과 단일 연도(2025년 기준) 두 개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됐다.

원광대에서는 생애 업적 부문에 오현철(약학과)·전인엽(화학공학과)·김윤철(약학과)·강대길(한의학)·이영훈(의예과)·홍승현(한약학과) 교수 등

6명이 선정됐다.

단일연도 부문에는 류지현(첨단바이오소재전공)·황은희(간호학과)·최경희(치의예과)·한요한(의예과)·강대길(한의학) 교수 등 5명이 포함됐다.

강대길 교수가 두 부문에 모두 이름을 올리면서 중박을 제외한 총 9명의 교수가 의·약학과 공학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명단에 들었다.

박성태 총장은 "세계 무대에서 학술 역량을 인정받은 교수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생명·의약학과 첨단바이오를 비롯한 주력 연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해서 낼 수 있도록 연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대, 지역 제조기업 'AI 전환' 본격화

군산대학교가 지역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I)을 촉진하고 주력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

국립군산대는 영커사업단과 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은 지난 21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군산 주력산업 제조 AI 혁신 얼라이언스 MAX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국립군산대와 군산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 서부지부 등 7개 협력기관이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세미나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이 AI 도입 과정에서 겪는 기술·인력·정보 부족 등의 문제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비롯해 전북권 산업단지 AX 마스터플랜과 조선업 AX 실증사례가 발표됐다.

국립군산대 영커사업단은 현장실습 등 실무형 인재 양성과 기업지원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제시했고, 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은 다테크 공공 기술 창출과 기술사업화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이어 이상완 KAIST 교수가 제조기업의 AI 도입 전략과 데이터 활용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주정훈 산학협력단장은 "영커사업단과 강소특구사업단을 중심으로 기술혁신과 맞춤형 기업 지원을 강화해 군산 주력산업의 AX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익산시 직장운동경기부, 기량 빛났다

익산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펜싱 선수들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등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익산시 선수단은 펜싱과 육상 종목에 출전해 그동안 갖고뒀은 기량을 펼쳤다.

펜싱에서는 지난 16일 남자 에페 개인전에 출전한 정병찬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고,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서는 최지영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다.

육상에서는 지난 18일 여자 5,000m에 출

전한 오혜원 선수가 16분 31초 32의 기록으로 3위에 올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성과는 선수들의 꾸준한 훈련과 지도진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전국 무대에서 익산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익산의 이름을 빛낸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하고 더 큰 무대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꿈의 무용단 '부안' 24일 정기공연 선포

(재)부안군문화재단의 '꿈의 무용단 '부안'이 오는 24일 부안온실정원에서 제4회 정기공연 '나, 꽃으로 태어났어'를 선보인다.

꿈의 무용단 '부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부안군문화재단이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무용단체 피움과 협력해 운영하는 꿈의 예술단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로 4년째를 맞았으며 부안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26명의 아동·청소년들이 현대무용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연은 프랑스 그림책 작가 엠마 줄리아니(Emma Giuliani)의 원작(Voir le jour, 한국판 : 나 꽃으로 태어났어)에서 영감을 받아, 책장을 넘기며 만났던 꽃과 자연의 이미지가 아이들의 몸짓으로

살아나고, 개별적인 움직임이 하나의 춤으로 연결되며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

이번 작품은 '나는 어떤 꽃일까?'라는 어떤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아이들에게 던진다.

꽃이 모두 같은 모습과 속도로 피어나지 않듯, 아이들 역시 저마다 다른 모습과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춤으로 표현한다.

특히 꽃을 직접 심고 가꾸며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작품의 주제를 탐색했다.

또한 지난 5월 부안마실축제와 9월 전주예술놀이축제에서 전북권 꿈의 무용단 합동공연을 선보이며 지역 문화·예술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다른 지역의 또래들과 함께 춤추며 무대 경험을 쌓았다.

이러한 과정은 아이들이 한 명의 무용수로 성장하는 동시에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하나의 작품을 함께 만들어 가는 소중한 경험이 됐다.

부안군문화재단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아이들이 춤을 배우고, 자연을 만나고, 서로의 움직임을 연결하며 만들어진 시간이 이번 무대에 고스란히

<사진=부안군문화재단>

담길 것"이라며 "아이들이 피워낸 저마다의 꽃을 함께 만나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북대 김용민 교수팀 '소프트 로봇' 개발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김용민 교수 연구팀이 물체의 접근을 스스로 감지하고 빛 반응을 통해 대상을 붙잡는 차세대 소프트 로봇 기술을 개발했다.

김 교수팀은 KAIST 문훈철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감지와 인공근육 기능을 단일 소재로 통합한 이온성 소프트 로봇 '이오노그래스퍼(Ionograsper)'를 개발했다.

이번 성과는 재료과학 분야 권위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Advanced Materials)' 최신호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기존 소프트 로봇은 주변을 감지하는 센서와 움직임을 만드는 구동기가 분리돼 부품과 배선이 늘어나고 지속적인 전력 공급이 요구되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파리지옥의 감지·포획 원리를

모사해 이를 해결했다. 전기를 띤 물체가 접근할 때 일어나는 이온 재배열 현상을 이용해 무전원 감지를 구현했고, 약한 자외선 자극을 받아 내부 나노 기공을 형성하며 물체를 붙잡도록 설계했다.

특히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도 10분 이상 포획 형태를 유지한 뒤 자연스럽게 대상을 놓아주도록 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다.

김용민 교수는 "부드러운 단일 소재가 센서와 인공근육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로봇의 구조적 복잡성과 전력 부담을 크게 낮췄다"며 "앞으로 인공지능(AI) 제어 기술과 연계해 사람이나 사물과 안전하게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 로봇의 핵심 감각·구동 소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우리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깨끗한 공기 만들기



하루3번, 10분씩
환기는 필수
미세먼지가나쁜날에도
조리후에는 30분



공기청정기
환기시스템
필터미리점검



외출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미세먼지를 줄이고

맑은 하늘 만들기



가까운거리는
걸고



폐기물배출
소각량
줄이고



낭비되는
전력은
뺏고

정읍경찰서, 도로변 무단방치 농기계 선제적 이동조치

정읍경찰서(서장 강경남)는 본격적인 가을 농번기를 맞아 도로변에 무단 방치된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농기계에 대한 직접 이동조치에 나섰다.

최근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해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운행이 크게 늘면서 작업 후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변에 농기계를 그대로 세워두고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도로변에 방치된 농기계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충돌 사고 등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정읍경찰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농로와 지방도 일대를 집중 순찰하며 도로를 정유해 2차 사고 위험이 심각한 방치 농기계에 대해 즉각적인 이동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강경남 서장은 “도로 위 농기계 무단 방치는 아간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어르신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계도와 홍보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영등상권

이색 문화축제로 활력 더한다

익산시 영등상권이 화려한 캐릭터와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는 무대로 변신한다.

익산시는 오는 24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영등공원 일원에서 ‘2026 다다영등 코스프레 챔피언십’이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 속 캐릭터를 의상과 연출로 재현하는 코스프레 문화를 지역 상권과 접목해 방문객을 유치하고, 영등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의 중심인 ‘코스프레 챔피언십’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준비한 의상과 무대 연출을 선보인다. 참가자 선정은 사전 신청을 통해 모두 마쳤으며, 캐릭터 위경과 자유 표현, 무대 퍼포먼스 등 다양한 경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대회 총상금은 170만 원으로, 대상 100만 원, 최우수상 30만 원, 우수상 20만 원, 인기상과 특별상 각 10만 원이 수여된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개성과 창의력을 살려 캐릭터의 특징과 매력을 표현한다. 관람객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코스프레 의상과 무대 공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코스프레 챔피언십을 통해 시민들이 다채로운 볼거리를 즐기고 주변 상점과 음식점도 이용하며 영등상권의 매력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상교동, 꽃심기로 마을 첫인상 ‘화사하게’

정읍시 상교동 행정복지센터와 상교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유성임)가 지난 21일 과교삼거리 일원에서 꽃심기와 환경정비 활동을 펼치며 마을 진입로를 화사하게 가꿨다.

이번 활동은 상교동을 오가는 주민과 방문객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고, 지역의 주요 진입 공간을 정비해 밝고 산뜻한 마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주민과 방문객의 통행이 많은 과교삼거리 일원에 꽃을 심고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참여자들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며 지역에 활기를 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탰다.

정혜연 동장은 “아름다운 상교동을 만들기 위해 꽃심기와 환경정비에 함께해 주신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꾸준한 환경개선 활동을 펼치고, 주민에게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방문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상교동의 모습을 선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민선 9기 익산시, 첫 조직개편

8국 43과 체제로 1국 3과 신설… 행정 혁신 ‘시동’

민선 9기 익산시가 미래 먹거리 선점과 시민 체감 행정 혁신을 위해 시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첫 조직개편에 나섰다.

익산시는 ‘익산 대전환’을 힘차게 실행할 일하는 조직으로의 전면 개편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김우진 익산시 기획안전국장은 22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민선 9기 시청 철학과 미래 비전을 담아낸 조직개편 세부 실행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피지컬 AI와 로봇,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그동안 분산됐던 청년·교육·문화 기능을 목적별로 일원화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본청 기구는 기존 7국 40과에서 '8

국 43과'로 1국 3과가 확대된다.

주요 개편 분야는 네 가지 축으로 완성된다.

우선 ‘미래첨단산업국 신설을 통한 신산업 컨트롤타워 구축’이다. ‘피지컬AI 로봇산업과’를 신설해 인공지능과 로봇, 반도체 소·부·장 산업 육성을 전담한다.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원스톱기업지원과를 두고, 에너지자원산업과를 신설해 신재생에너지와 햇빛소득마을, 향토 산업인 석재산업 육성과 함께 첨단 산단 전력·용수 확보에 전면 대응한다.

‘청년 교육과 일자리 연계, 문화관광 융합’에도 힘을 신는다. 교육협력과를 미래인재교육과로 바꿔 청년교육경제국으로 전진 배치하고 대학 협력과 평생교육, 사회연대경제를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창업과 지역경제를 함께 이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 △관광 △체육 △미식 기능을 하나로 묶고, 백제왕도 핵심유적지구 고도육성과 체류형 관광 인프라 강화에 집중한다. ‘시민주권’이라는 민선9기의 핵심 가치도 반영된다. 행정지원과에 시민주권계를 신설

해 타운홀 미팅 등 시민 참여 통로를 더욱 넓힌다.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돌봄과로 개편해 빈틈없는 통합돌봄을 제공하고, 여성청소년과는 성평등가족과, 종합민원과는 민원지적과로 명칭을 바꿔 업무 정체성을 확립한다. 시는 도시건설 교통국에 도시개발과와 도로철도과를 뒤 익산역 복합개발과 원도심 재생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건설과의 하천 업무와 농정국의 기반 조성 업무를 합친 ‘하천기반과’를 신설해 고질적인 업무 떠남 기기를 없앤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11월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 12월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전격 시행할 계획이다.

김우진 기획안전국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히 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익산 대전환의 과제를 현장에서 완수할 수 있도록 엔진을 새로 얹는 작업”이라며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하는 동시에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집중안전점검’ 전국 최우수

재난예방·관리 역량 인정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집중안전점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집중안전점검 추진실적을 평가해 최우수기관 5곳과 우수기관 12곳을 선정했다.

정읍시는 전북특별자치도 평가에 이어 전국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에 오르며 ‘2관왕’을 달성했다. 현장 중심의 재난 예방 활동과 안전관리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를요 강조하며 현장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시는 정부의 안전관리 기조에 발맞춰 민·관 합동점검과 전문장비 활용, 시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왔다.

시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건설현장과 공동주택, 공장시설 등 131개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정읍시>

시설·소방·전기·가스 분야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열화상 카메라와 열원지향측정기, 가스누출감지기 등 전문장비를 활용해 시설별 안전관리 상태를 살폈다.

특히 공동주택과 농산물도매시장 등 9개 시설에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높은 곳이나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간까지 점검하며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시민이 직접 점검 대상을 신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했다.

이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 홍보와 자율안전점검표 배부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 안전점검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대상기관 선정은 시민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자 정읍시의 재난예방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과 지속적인 후속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정신건강증진사업 성과 인정

위기 대응·지원체계 구축 유공기관 선정

익산시가 시민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익산시 보건소는 22일 열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사업 실무자 워크숍’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번 유공기관 선정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위기 대응체계 구축,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보건소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주요 사업은 정신건강 인식 개선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비롯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찾아가는 이동상담,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서비스, 자살예방사업 등이다.

특히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필요한 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민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의 정신건강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 자살예방 및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군산시는 22일 시청 대강당에서 기관장 및 부사장 이상 고위직 공무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를 되짚어보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

여 서로를 존중하는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 전문강사 채현숙 대 표(유쾌한 젠더로 공동대표)는 ‘관리자가 알아야 할 성인지 감수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채 강사는 △관련법·정책의 변화 △디지털 성폭력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폭력 발생 구조

와 판단 기준 △2차 피해 방지를 포함한 사건처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영민 부시장은 “건강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리자들의 높은 성인지 감수성과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감곡천 정비 이어간다

집중호우 대비 안전강화

정읍시가 감곡천 감곡지구 정비공사를 이달 말 마무리하고 통석지구 정비를 이어 추진하며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 안전을 강화한다.

감곡천(감곡지구) 지방하천 정비공사는 원평천 합류점부터 화봉교까지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총 391억원을 투입한 사업이다. 제방 3.79km를 보강하고 교량 3곳을 다시 놓는 공사 등을 추진했으며, 이달 말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감곡지구 정비에 이어 감곡천(통석지구) 지방하천 정비공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대상 구간은 감곡면 화봉교부터 호남고속도로까지로, 도비 221억원과 시비 95억원 등 총 316억원이 투입된다.

통석지구에서는 제방 3.72km를 새로 쌓거나 보강하고 노후 교량 9곳을 다시 놓는다. 하천 바닥이 물

살에 깔리는 것을 막기 위한 낙차공 3곳과 수문을 열고 닫아 수위를 조절하는 자동보 1곳도 정비하거나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적인 집중호우와 이상기후에 대비해 하천의 홍수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두 지구의 정비를 이어 추진함으로써 반복되는 침수 위험을 줄이고 주민들의 생활터전과 영농 기반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통석지구 정비공사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해 예방사업인 만큼 지역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들이 홍수 피해 걱정을 덜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선결제 요구 100% 범죄”

익산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계약담당 직원을 사칭해 지역 업체에 접근한 뒤 금전을 가로채는 지능형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기범은 농업기술센터 계약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가짜 명함과 물품 소개서를 보내 공공기관의 공식 납품 계약인 것처럼 피해 업체를 속였다.

이어 납품 조건을 맞추려면 특정 민간 업체의 물품이 필요하다고 속여 선구매를 유도했다. 피해 업체가 해당 지정 업체로 대금을 먼저 송금하자 사기범은 연락을 끊고 그대로 잠적했다.

현재 지역 업체 1곳이 실제 피해를 입어 경찰 신고를 마쳤으며 사건은 광역수사대로 넘겨져 수사가 진행 중이

다. 유사한 사칭 수법이 전국 곳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물품 납품 계약을 맺을 때 민간 업체에 특정 업체의 물품을 사서 납품하도록 지정하거나, 물품 대금을 사전에 개인 또는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았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명함을 내밀며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알선하거나 대금 선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 범죄”라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포착되면 즉시 시청 공식 부서에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25일 ‘맘껏 가족놀이터’ 개최

군산시는 오는 25일 오후 1시 수송근린공원 내 맘껏광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026년 맘껏 가족놀이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이 탁 트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군산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에는 다채로운 놀이와 체험 부스가 마련된다.

△과학 마술쇼가 펼쳐지는 ‘공연존’ △에어바운스, 에어스포츠, 유아용 볼풀장, 크로마키 사진관, 샌드아트 체험 등 아이부터 부모까지 함께 즐기는 ‘놀이존’ △자연 워터, 틈케이스 꾸미

기 등 자유롭게 쉬어갈 수 있는 ‘힐링존’이 조성돼 온 가족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전체 행사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특히 오후 2시 40분부터 40분간 열리는 ‘과학 마술쇼’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 교감하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웠다”며 “다가오는 주말, 많은 가족이 맘껏광장을 찾아 이를 그대로 ‘맘껏’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이달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당부

정읍시가 이달 말 종료되는 동물등록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앞두고 미등록 반려견 등록과 변경사항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오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기간 안에 미등록 반려견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등록·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1월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의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무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다. 동물생산업자가 단독주택이 아닌 영업장에서 기르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개도 등록해야 한다. 고양이 등록은 선택사항이다.

이미 동물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가 바뀌거나 주소·전화번호 등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와 협약한 마이펫·다나·대한동물병원 등에서 등록하면 등록 수수료가 면제받을 수 있다. 정보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과 정부24 누리집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부안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부터 여진·건물 붕괴·화재까지

부안군은 오는 26일 군청 5층 대회의실과 부안실내체육관 일원에서 방사능방재훈련과 연계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을 안전지역으로 소개하던 중 여진으로 부안실내체육관 일부가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하는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훈련은 방사능 누출에 따른 주민소개와 오염검사·제염, 구호소 운영 등 주민보호조치를 시작으로 여진에 따른 건물 붕괴·화재 발생 이후 인명구조와 구급, 화재진압, 수습·복구까지 실제 재난대응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현장훈련은 부안소방서 긴급구조종합훈련과 연계해 긴급구조통제단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함께 가동하고 소방의 인명구조·화재진압 활동과 부안군의 주민보호·자원지원·현장 수습활동 간 협업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는 군수 주재 재난안전대책본부 토론회를 실시하고 부안실내체육관에서는 방사능 부군수 주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현장훈련을 진행하는 등 토론회와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계한다.

토론회훈련에서는 상황판단회의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상황별 대응방향과 협업기능별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현장훈련에서는 주민소개·구호소 운영과 재난현장 대응활동을 실제로 수행한다.

또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현장상황 공유와 부족자원 응원

요청, 관계기관 인력·장비 지원, 긴급구조활동 종료에 따른 지휘권 이양 및 수습·복구체제 전환 등 실제 재난발생 시 필요한 기관 간 협업과 의사결정 절차도 훈련에 반영한다.

이번 훈련에는 군을 비롯해 소방·경찰·해양경찰·군부대와 전력·가스·통신·의료기관,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대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며, 지역주민도 주민소개와 주민보호훈련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방사능 방재훈련과 안전한국훈련을 연계하고, 긴급구조종합훈련까지 함께 실시함으로써 주민보호부터 긴급구조, 현장 수습·복구까지 재난대응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훈련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지식산업센터 운영 전문화

전북경진원과 위·수탁 협약 체결

김제시는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과 김제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서면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인 김제시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기업 지원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 지식산업센터는 백산면 부거리 1596(지정선산업단지 북합육지)에 지상 4층(연면적 8,000㎡)의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 성장 지원과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갈 핵심 거점 시설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은 그동안 축적해 온 기업지원 노하우와 전문 인력을 바탕



<사진=김제시>

으로 시설 운영 관리를 비롯해 우수 유망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센터 운영 전반을 맡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센터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협약은 김제시 지식산업센터가 단순한 임대 공간을 넘어, 우리 지역 창업·벤처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성장의 요량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며,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수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수 기업을 유치해 나갈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

‘고창읍 성산3길’ 51개 업소 정비

고창군 고창읍 성산3길(원마트-풍년당)이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이 새롭게 바뀐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7년 간판개선사업’ 공모

사업에 고창읍 성산3길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3억6000만원이 투입돼 사업 대상지 내 51개 업소의 노후·불량 간판이 지역 특성과 거리 여건을 반영한 세련된 간판으로 바뀐다.

특히 이번사업은 심덕섭 군수의 공약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이다. 앞으로 사업대상지 내 업소 및 건물주와의 협의를

거쳐 간판 디자인 개선과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민선 9기 공약사업을 실현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살린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 기원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지회장 김성태)는 지난 21일 부안군 스포츠클럽 실내체육관에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박지원 국회의원, 이현기 부안군의회의장을 비롯해 김창현 도의원, 군의원, 기관·단체장, 지회 관계자 및 관내 어르신 등 2,500여 명이 참석해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되새기고, 어르신 공경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평소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모범 노인, 노인복지 기여자, 효부상, 감사패, 장수상, 노인봉사상 등 40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특히,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는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노인회 조직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부안을 만드는 것을 군정의 핵심 과제로 삼고, 건강 증진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진=부안군>

다양한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고 부안군에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는 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 논콩 가공제품’ 팝업 운영

용산역서 25일까지

김제시는 22일 용산역에서 2차 ‘김제 논콩 가공제품 팝업스토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 ‘2026년 인구감소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와 코레일유통의 상생협력을 통해 김제 논콩 가공제품을 홍보하고 지역기업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했던 서울역 팝업스토어에서 수도권 소비자와 철도 이용객들로 부터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제품력으로 큰 호응을 받으며 성공리에 막을 내린 바 있다.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4일간 (오전9시~오후8시) 진행되는 용

산역 팝업 현장에서는 방문객들을 위한 제품 시식 행사 및 특별 할인을 제공하고 특히, 시는 이번 2차 팝업운영 기간동안 용산역 내 주요 동선에 위치한 대형 전광판을 통해 집중 홍보를 동시 진행한다.

팝업 부스의 현장 마케팅과 전광판의 압도적인 시각적 홍보를 연계해, 바쁘게 이동하는 보행자들에게도 ‘김제 논콩’ 브랜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직접적인 방문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행사부터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제품력으로 큰 호응을 받으며 성공리에 막을 내린 바 있다.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4일간 (오전9시~오후8시) 진행되는 용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자유중 공도팀, 전국대회서 저력 입증

개인전 1·3위, 단체전 2위

고창군 자유중학교 학생들이 전국

중·고등학교 공도대회에서 단체전과 개인전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고창 공도의 저력을 전국 무대에 알렸다.

자유중학교 학생들은 지난 18일 대전무덕정(유성공도장)에서 열린 ‘제3회 한국중고공도연맹회장배 전국중·고등학교공도대회’에 출전해 개인전 1위(이승화)·3위(박시율)와 단체전(이승화, 김민철, 박시율, 유병현, 전현우) 2위를 차지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한국중고공도연맹이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의 중·고등학교생 등이 참가한 가운데 중학생부와 고등학교부로 나눠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진행됐다.

이번 성과의 밑바탕에는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고창 모양정 이종민 공도사범을 비롯한 지역 공도인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헌신이 있었다.

이종민 사범은 학생들이 우리 전통 무예인 공도의 기본자세와 예절을 익히고 실전 기량을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해 왔으며, 모양정 공도인들도 학생들의 훈련과 성장을 함께 지원하며 지역 공도 꿈나무 육성에 힘을 보탰다.

고창군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도 지역 체육단체 및 체육인들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경험하며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우수년 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한 체육 인적자원과 연계해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스포츠클럽인 공도의 계승·발전과 지역 체육인재 육성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원 힘써

복지포인트·보수교육비 지급

부안군은 2026년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포인트 및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복지포인트 지원은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돼,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1년 근무자를 대상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포인트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하고 있으며, 보수교육비는 사회복지

사의 전문지식 함양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1인당 5만 6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올해 복지포인트는 총 350명에게 1억 500만원, 보수교육비는 총 170명에게 95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400여명에게 복지포인트와 보수교육비를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사업 실무자 워크숍

생활인구 확대 나서

김제시는 22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정신건강복지사업 실무자 워크숍’이 도내 14개 시·군 실무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정신건강복지사업 실무자들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시·군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사가 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특히 이번 행사 유치를 통해 도내 각 지역의 정신건강사업 실무자 300여 명이 김제를 방문하면서 지역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외부 방문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정신건강사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정신건강서비스를 연계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신건강서비스를 매개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 힘쓰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심원 만월어촌계, 지주식 김 풍어제 개최 및 양식 시작

고창군의 400년 전통 지주식 김 양식이 지난해 재개에 이어 올해도 본격적인 수확에 나서며 전통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심원면 만월어촌계는 지난 20일 서해안 바닷공원에서 풍어제를 개최해 마을의 안녕과 풍성한 수확을 기원했다.

올해 행사에는 김정강 전북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박종열·김삼승 고창군의원, 김충고창군수협조합장, 김갑선 해리농협장 등 관계기관장과 지역 인사들이 함께해 어민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앞서 고창군은 2024년 중단됐던 전통 지주식 김 양식을 2025년에 다시 부활시켜 물김 680톤을 생산하고 약 3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시켰다.

올해도 전통 지주식 김 양식을 시작해 2027년 4월까지 수확할 예정이다. 만월어촌계는 2019년 미국유기인증(USDA) 및 2021년 서해안 최초로 물김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아 고창 지주식 김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진행했다.

2024년 어업권 소멸로 기존 인증이 폐기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5년 김 양식이 재개됨에 따라 인증 재취득을 추진하며 고창 전통 지주식 김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통 어업의 가치를 보존하고 고창 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며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고창을 대표하는 수산물로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역전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성로’

김제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와 김제역전시장 상인회(회장 장택근), JTJV 전주방송이 주관한 JTJ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22일 김제역전시장 특설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개그맨 황기순의 사회로 열린 이날 시장가요제는 초창가수 이투네, 품곰, 임현정의 축하공연과 예선을 거쳐 선발된 시민들의 노래자랑이 펼쳐졌다. 또한, 행운권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이 증정돼 시민들이 함께하느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장택근 역전시장 상인회장은 “이 행사를 계기로 역전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성장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역전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통해 김제역전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김제역전시장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활기를 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자치담당행정관 장학금 후원계좌 갖기 후원 동참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부안군 자치행정담당관 직원들이 근농인재육성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후원 릴레이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자치행정담당관실을 찾아 캠페인의 취지와 주요 지원 사업을 설명하며, 군정의 중심에서 소통하는 부서인 만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직원들은 흔쾌히 후원 참여 의사를 밝히며 릴레이의 의미를 더했다.

‘1군민 1후원계좌 갖기’는 군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후원 계좌를 개설해 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장학 사업 캠페인이다. 모금된 후원금은 반값 등록금을 비롯해 다자녀 장학금, 특기 장학금, 비전학 청년 취·창업 지원금 등 다양한 맞춤형 인재 육성 사업에 소중히 쓰이고 있다.

이날 사무실에 모인 자치행정담당관 직원들은 ‘인재 키우는 부안, 꿈을 이루는 청소년’, ‘작은 정성으로 채우는 큰 희망’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힘찬 합성과 함께 릴레이 동참 의지를 다졌다.

최종에 자치행정담당관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부안의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남원시, 지역 성장·정주 기반 강화 2(題)

산림치유원 유치·청사 이전 MOU 체결	농촌 빈집 50호 ‘새단장’…귀농귀촌인에 임대
남원시가 서부지방산림청과 손잡고 대형 국제사업 유치와 노후 청사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시동을 걸었다. 남원시는 21일 시장실에서 서부지방산림청과 ‘국립 지리산 산림치유원 유치 및 서부지방산림청 청사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1995년 지어져 30년이 경과한 노후 청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리산권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고품격 치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양 기관의 강한 의지가 맞물려 성사됐다. 양 기관이 합의한 핵심 협력 사항은 △ 1,000억 원 투입 ‘국립 지리산 산림 치유원’ 남원 유치 △ ‘서부지방산림청’ KTX 남원역 인근(신 정동 일원) 신축 이전 △ 숙박·도감 있는 부지확보를 위한 ‘시유림↔국유림’ 맞교환 세가지다. 특히, 최대 난제였던 사업 부지확보 문제를 시·국유림 맞교환이라는 과감한 방 식으로 해결하여 사업 추진에 엄청난 속도감이 붙게 됐다. 또한 서부지방산림청이 KTX 남원역 인근으로 이전함에 따라 민원인과 방문객들의 접근성 역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지속 가능한 산림복지와 지역 발전의 성공 모델을 함께 만든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국민 누구나 최고 수준의 산림치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남원시가 민선 9기 공약사업인 ‘귀농 귀촌 정착 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귀농 귀촌인의 주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새담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해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새담하우스 조성 사업’은 농촌 빈집 새단장 또는 주택 구입 비용을 지원해 귀농 귀촌인 및 희망자에게 5년간 임대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50호 조성 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며, 호당 지원 규모는 5,000만 원이다. 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2026년 하반기 농촌 빈집 활용 수요 조사를 실시 한다. 이를 통해 빈집 현황과 활용 가능성, 마을별 여건 등을 파악하고 사업 대상 발굴과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정비법’ 상 빈집으로, 개인이나 마을 등이 소유하고 마을회 등 운영 주체가 소유자와 5년 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택이다. 조성된 새담하우스는 마을회 등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며 귀농 귀촌인에게 임대한다. 마을회는 귀농 귀촌인과 마을 공동체 연계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리 기간 종료 후에는 소유자와 합의해 임대를 지속하거나 소유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도시가스 사각지대 LPG 공급 확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속도’ 7개 마을 401세대 보급 완료

완주군이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과 배관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민선 9기 핵심 에너지 복지 사업이다.

군은 지난달부터 삼례읍 용전마을 79세대를 대상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사업비 10억 7,700만 원을 들여 1.99톤 저장탱크 27기와 3.42km 길이의 공급 배관, 세대별 전용 보일러를 설치한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거나 계획이 없는 농촌 마을에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갖춰 대형 수송차량(벌크로리)으로 가스를 대량 공급하는 체계다. 개별 용기를 쓸 때보다 난방비 부담을 낮추고,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다.

군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4개 읍면 7개 마을 401세대에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을 마쳤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이 한결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스를 사용하며 난방비 걱정도 덜게 될 것”이라며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를 넓히기 위해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4391억 규모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2028~2029년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정부중점투자연계 미래·첨단등

남원시는 22일 부시장 주재로 ‘2028~29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5대 중점투자 방향과 연계해 AI·첨단산업, 미래 성장동력, 청년지원, 지역균형발전, 국민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52개 사업, 총사업비 4,391억원 규모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주요 발굴사업으로는 △남원시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조성,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식물 웰리스 기반 차세대 엑소좀 생산·기능 고도화 기술 개발, △지리산둘레길 거점 순례숙

소 조성,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이음도로 조성, △이백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및 농기계 공유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에 대응해 그린바이오, 엑소좀, 스마트농업 등 지역의 산업 여건을 활용한 미래 성장산업을 발굴하고,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와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풍수해생물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광역·지방상수도 비상연계관로 설치 등 재난 예방과 생활안전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도 발굴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이날 보고회에서는 발굴사업의 정부정책과 실현 가능성, 민선9기 공약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정부 신규사업과 연계한 추가 발굴 방안도 논의했다.

남원시는 발굴보고회 이후 전북자치도 및 소관부처를 대상으로 사업실명과 협의를 본격 추진하고,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11월까지 신규사업 추가 발굴을 추진하고 시장 주재 최종보고회를 통해 발굴사업을 종합 점검하는 등 2028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즉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강천산 가을 성수기 특별운영대책 추진

11월 22일까지 31일간 집중 관리 교통·주차 관리 강화, 편의 제고

전국적인 가을 단풍 명소로 사랑받는 순창 강천산군립공원이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손님맞이 준비에 나섰다.

군은 오늘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31일간을 강천산군립공원 가을 성수기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관광객 집중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주차질서 확립과 안전관리, 편의시설 정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운영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단풍철 관광객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진입로와 주차장 일대의 교통관리를 강화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임시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의 이



<사진=순창군>

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궤도 열차 운영을 추진하고, 매표소와 검표소의 입장 동선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공원 내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해 관광객들에게 순창의 우수한 농산물을 선보이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을 관광 성수기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군은 성수기 운영에 앞서 등산로와

산책로,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정비를 추진했으며, 운영기간에도 환경정비와 편의시설 관리를 강화해 관광객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원 내 불법 상행위와 불법주차, 흡연 등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순창경찰서 및 순창소방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교통혼잡 해소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지원 확대

순창군은 겨울철 독감 유행에 대비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고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추고, 군민들이 건강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외에도 15~64세 순창군민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 예방접종을 실시해 군민들의 접종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접종 대상은 15~64세 순창군민(1962년 12월 31일~2011년 1월 1일 출생자)으로, 접종 비용은 9,000원이다. 접종 기간은 10월 21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다.

또한 해당 연령대 군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은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인 생후 6개월부터 14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어린이와 임신부는 2027년 4월 30일까지 보건의로원과 지정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병·의원에서 10월 6일부터, 보건의로원에서는 10월 2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보건의로원 예방접종은 1층 예방접종실에서 실시하며 접종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의회,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

내달 24일부터 9일간 진행 본청·기관·읍면·출자출연기관 등

완주군의회의(의장 송중기)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본격적인 감사 준비에 돌입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귀현)는 22일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오는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병호 부위원장 이 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감사 일정과 대상, 진행 방식 등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계획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송중기 의장을 제외한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



을 면밀히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시정·보완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행정 운영의 적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감사 대상은 완주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비롯해 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부서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과 서류검증, 공개인 출석 등을 통해 주요 현안을 살펴볼 예정이며, 출자·출연기관은 소관 주무부서 감사 이후, 시설관리공단은 12월 2일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종료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필요한 시정과 개선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국제 분석능력 인정

영국 FERA 주관 FAPAS 첫 참가 시험분석서비스 전 항목 적합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올해 처음 참가한 국제 비교속련도 평가에서 모든 분석항목에 적합 판정을 받으며 시험분석 역량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영국 식품환경연구청(FERA)이 주관하는 국제 비교속련도 평가 프로그램인 FAPAS(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를 통해 이뤄졌다.

FAPAS는 세계 각국의 시험·분석기관에 동일한 시료를 제공한 뒤 분석 결과를 비교해 각 기관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삼례, 24일 낮밤으로 미식·문화 축제 이어져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과 삼례책마을 일원에서 24일 미식과 문화, 전시를 아우르는 가을 축제가 낮부터 밤까지 이어진다.

낮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삼례책마을 일원에서 완주 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는 ‘2026 스테이삼례 브런치 페스티벌’을 연다.

해럴드 소풍 파티를 비롯해 내건 이번 행사에서는 브런치와 후식, 커피 등을 판매하는 나눔장터(플리마켓)를 비롯해 마술·비눗방울·풍선 공연, 거리 공연(버스킹), 어린이 공기놀이터(에어바운스), 완주미디어센터 연계

가족 영화 상영 등 가족 나들이객을 위한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이어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에는 삼례문화예술촌 특설무대에서 완주군과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앵커사업단이 함께하는 야간 미식 축제 ‘완술랭 맛보삼례’를 펼친다.

완주산 식재료를 활용한 박준우 요리사(셰프)의 즉석 요리 시연(라이브 쿡킹쇼)과 퀴즈쇼 ‘완주미식고사’, 가수 현진영과 래퍼 아웃사이더 등이 출연하는 ‘JTV 루크의 유니버스 공개방송’을 진행한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마을만들기 ‘순향’ 3개 마을 주민공동체 거점 조성

남원시가 농촌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아영면 외지마을에서는 ‘마을문화센터’ 조성 공사가 시작됐으며, 주생면 동산마을과 부동마을은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아영면 외지마을에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마을문화센터’가 조성된다. 문화·교류 거점이 마련됨에 따라 마을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주생면에서도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동산마을은 주민회의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동체 활동공간을 조성 중이며, 부동마을은 주민 복지를 위한 공동 급식시설 확충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두 마을은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마을 내 교류와 협력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농촌 마을의 기초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3개 마을의 특성에 맞는 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가족센터 “5락 즐겨요” 31일 가족 축제 개최

완주군가족센터(센터장 신향)가 오는 31일 균형 맞은편 운곡지구 공원 일원(운곡마루유치원 앞)에서 ‘제5회 완주군 가족 축제’를 연다.

올해 축제는 ‘완주 5락(樂)’을 주제로 체험락, 놀이락, 침락, 문화락, 맛락 등 다섯 가지 테마를 선보인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한곳에서 여유롭게 무료 체험과 놀이시설, 공연, 먹거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알차게 채웠다.

체험 구역에서는 개인 맞춤형 색채(퍼스널 컬러) 진단과 손톱 미용(네일아트), 전자 캐리커처, 즉석 사진 촬영을 비롯해 액체괴물(슬라임)·친환경 가방(에코백)·반려식물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대형 블록 쌓기와 소형 회전목마, 두더지 잡기 게임, 공기놀이터(에어바운스)도 운영한다.

공연도 풍성하다. 오전에는 우석대학교 태권도공연단의 역동적인 무대와 기념식에 이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선보이는 사물놀이 가족제의 흥을 돋운다. 오후에는 케이팝(K-POP) 댄스와 국악 연주, 비눗방울 쇼, 가족 참여 레크리에이션이 잇따르며 푸진한 먹거리 장터도 함께 열린다.

완주군가족센터의 대표 가족축제 행사인 이번 축제는 지난해 4회 행사 때도 800명 안팎의 주민이 몰리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소방서, 삼례시장 일대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완주소방서(서장 이경승)는 최근 삼례시장 일대에서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훈련 및 소방차 출동로 확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삼례119안전센터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소방차 길 터주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삼례119안전센터는 삼례시장 일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훈련을 실시하고, 시장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병행했다.

주요 내용은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훈련 △소방차 진입 장애요인 및 출동로 확인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 홍보 △소방차 출동로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등이다.

이경승 완주소방서장은 “소방차 길 터주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작은 실천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익산 하랑자연어린이집 작은 손길 모아 이웃사랑

아이들의 작은 나눔이 모여 이웃을 위한 따뜻한 희망으로 이어졌다.

익산시 모현동은 22일 하랑자연어린이집(원장 주영식)이 '우리가족 함께하는 웰니스마켓 페스티벌' 수익금 15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어린이집 원아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한 웰니스마켓에서 마련한 것으로, 지역 내 결식 우려 아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마켓에 참여하고 수익금을 기부하면서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직접 경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주영식 원장은 "정성껏 마련한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사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 아산면 지사협 반찬나눔·가을나들이 추진

고창군 아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허영삼)가 지난 21일 어려운 이웃에 반찬을 전달하고, 꽃정원 방문과 영화관람으로 문화체험 시간을 가졌다.

아산 지사협은 관내 어려운 이웃 50가구에 밀반찬 3종을 전달하는 '우리동네 병장고 채우미' 사업을 진행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어 고창꽃정원을 방문해 만개한 가을꽃을 감상하고, '영화로 여는 문화나들이'에 참여해 최신 영화를 관람하는 등 문화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허영삼 민간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4분기 특화사업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위원들과 힘을 모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연 아산면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아산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 군의원, 경찰의 날 감사장 수상

주민 생활안전 증진 지역 치안 협력에 기여

완주군의회 심부건 부의장과 이미경 의원이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완주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완주군의회는 22일 의정실에서 성중기 의장이 두 의원에게 감사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장은 주민들의 생활안전 증진과 지역 치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경찰행정 발전에 힘을 보탠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

특히 두 의원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안전 문제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주민 중심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당초 두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감사장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의회 회기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이날 별도로 전달받았다.

심부건 부의장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군민 모두가 안



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완주=김명곤 기자

부안 곰소왕젓갈, 2026 치유식품대전 장관상 수상

부안 막걸리 활용 치유요리 치유음식 영양학적 가치 높여

부안군은 곰소왕젓갈 최영구 씨 부부가 지난 18일 일산호수공원 원마운트 중앙광장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치유식품대전 전순의예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영구 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부인 이상애 씨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상을 받았다.

최영구 씨는 발효음식인 부안 막걸리를 활용한 치유요리를 선보여 대장금교지를 받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도 함께 수상했다.

공직 재직 시절부터 민간요법을 활용한 치유를 공부해 온 최 씨는 치유음식의 영양학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부인 이상애 씨와 함께 발효음식의 가치를 접목한 치유음식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어르신 식사 배식 봉사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22일 덕진노인복지관에서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연구개발과 기업지원 등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원이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연구원 임직원들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배식하고, 식사 후 주변을 정리하며 복지관의 급식 운영을 도왔다.

김상남 원장은 "농생명 연구성과를 기업의 제품화와 사업화로 연결해 지역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것도 공공 연구기관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본원의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에 충실하면서 임직원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임실읍박덕원 이장 자녀들, 성금 기탁

임실군은 지난 20일 임실을 하성리 박덕원 이장의 자녀 4명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고향 임실의 발전을 응원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가족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4남매가 함께 고향사랑기부금에 참여해 고향에 대한 애정을 나눔으로 실천하고, 지역 발전

을 위한 든든한 힘을 보탤 것이라는 점에서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한독수 군수는 기탁식에서 "고향 임실을 잊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히 마음을 모아주신 박덕원 이장님의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가족 모두가 한뜻으로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임실의 미래를 밝히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김제 백산면 지사협 저소득 어르신께 겨울이불 전달

김제시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는 22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고은용)가 저소득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포근한 겨울이불나눔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절기 저소득 어르신들의 난방용품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추운 지역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가정에 직접 방문해 겨울이불 40채를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와 생활 속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폈다.

고은용 민간위원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포근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완주 고산면 지사협 홀몸 어르신에 반찬 나눔

완주군 고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경순, 국혜숙)는 22일 관내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등 취약계층 80가구를 대상으로 '힘찬(饑) 반찬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은 결식 우려가 있는 이웃들에게 정성껏 만든 밀반찬을 전하고 안부를 살펴 정서적 고립감을 덜어주고,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고산면행정복지센터 식당에 모여 짜리고추 매추리알조림과 깍두기 등으로 반찬 꾸러미를 손수 만들었다.

이어 대상 가구를 일일이 찾아 반찬을 건네며 건강 상태와 생활 형편을 세심히 살폈다.

이경순 공동위원장은 "쌀쌀해지는 날씨에 홀로 지내는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에게 정성껏 만든 반찬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나눔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一事一言〉



바라지 않아야 자유다

곽보경

작가·前 국회정책연구위원

그리스 크레타섬의 도시 이라클리오. 오래된 성벽 위에 소박한 무덤 하나가 있다. 나무 십자가와 비석 하나가 전부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이다.

카잔차키스는 바로 이 크레타섬에서 태어났다. 시인이자 소설가, 극작가였다. 잠시 장관을 지낸 정치가이기도 했다. 그는 평생 답을 찾아 헤맸다. 니체를 읽고, 예수와 붓다를 공부하고, 레닌의 혁명에도 마음이 기울었다. 그 오랜 방황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 이 세 문장이다.

소설 속 조르바에게는 실제 모델이 있다. 젊은 시절 카잔차키스는 광산 사업을 한 적이 있다. 그때 함께 일한 사내가 조르바다. 사업은 망했지만 작가는 그 사내를 잊지 못했다. 그리고 30년 가까이 지나 소설 속에 그를 되살렸다.

소설에는 두 남자가 나온다. 한 사람은 책 속에 파묻혀 사는 지식인이다. 그는 늘 생각하고, 망설인다. 다른 한 사람이 조르바다. 그는 잘 먹고, 잘 마시고, 마음껏 사랑하고, 춤춘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다. 지식인이 평생 찾던 답을 조르바는 이미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함께 사업을 벌인다. 그러나 공들여 세운 설비가 한순간에 무너진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둘만 남는다. 그때 조르바는 고기를 굽고 술을 따른 뒤 춤을 춘다. 늘 망설이

던 지식인은 그에게 춤을 가르쳐 달라고 말한다. 무너진 설비 앞에서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몸을 흔든다.

이 묘비명은 요즘 사람들에게 특히 사랑받는다. 매일 아침 봄비는 지하철에 몸을 싣는 사람이 있다. 대출 이자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는 사람, 퇴근 후에도 회사 메시지를 확인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시간과 돈과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 세 문장을 탈출구처럼 마음에 새긴다.

그런데 한 번 더 읽어 보자. 첫 문장은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이다. 자유를 간절히 바라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이 문장에서 멀어진다. 무언가를 바라면 그것을 잃을까 봐 걱정이 생긴다. 승진을 바라는 사람은 상사의 눈치를 본다. 집을 바라는 사람은 집값 뉴스에 발잡을 설친다. 걱정은 곧 두려움이 된다. 바람과 두려움은 늘 함께 다닌다. 바람을 내려놓으면 두려움도 함께 내려간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욕망 그 자체가 아니다. 내일에 거는 기대다. 먹고 싶고, 웃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까지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오늘의 기쁨은 마음껏 누리되, 내일의 보상에 오늘을 걸지 말라는 것이다.

눈여겨볼 점이 하나 더 있다. 세 문장 사이에는 ‘그러므로’가 없다. 바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 결과로 자유를 얻는다는 계산이 아니다. 자유는 노력해서 받아 내는 보상이 아니다. 기대와 두려움을 내려놓은 자리에 저절로 남는 상태다. ‘바라지 않아야 자유다’라는 이 글

의 제목조차 어쩌면 또 하나의 셈이다. 카잔차키스의 비석에는 그 셈조차 없다.

조르바를 보라. 그는 내일을 기대하지 않았다. 대신 오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살았다. 그는 잃을 것을 세지 않았고,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날에도 그날 밤의 춤을 마루지 않았다.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즐기는 일이다. 오늘을 내일에 저장 잡하지 않는 일이다.

우리는 대개 반대로 산다. 은퇴 후의 여유를 위해 오늘 저녁을 반납한다. 언젠가 떠날 여행을 위해 오늘의 산책을 건너뛴다. 자유는 늘 다음 달, 다음 해에 있다. 그렇게 미뤄 둔 자유는 잘 오지 않는다. 와도 그때는 누릴 힘이 남아 있지 않다. 조르바라면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왜 오늘 춤추지 않는가.

누구나 언젠가 삶을 마친다. 그날 내 삶이 아름다웠다고 말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더 넓은 집이나 더 높은 자리는 아닐 것이다. 마지막 날 떠오르는 것은 승진한 날이 아니라 누군가와 늦도록 웃던 저녁일 것이다.

성벽 위의 세 문장은 오늘도 조용히 묻는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 둘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도 한 번쯤 조르바처럼 춤출 수 있을 것이다.

ㅣ 독자투고 ㅣ

“엄마, 나 핸드폰 깨졌어” AI 기술까지 악용한 최신 피싱 수법



김정철

어설픈 억양의 전화나 단순 어리숙한 문자는 옛말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술의 발달과 함께 날로 교묘해지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사기관 사칭이나 저금리 대출 유도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딥페이크(AI 음성·영상 합성) 기술과 스미싱 악성 앱을 결합한 지능형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자녀나 지인의 실제 목소리와 얼굴을 똑같이 모방해 “핸드폰이

고장 났다”, “급하게 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긴급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또한 택배 미수령, 모바일 정점청,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문자로 의심 없이 웹주소(URL)를 클릭하게 만드는 스미싱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링크를 누르는 순간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깔려 원격 조종당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경찰에 확인 전화를 걸더라도 사기범 일당에게 연결되도록 전화를 피싱용 번호로 돌리는 수법까지 동원된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꼭 기억하자.

첫째, 가족이나 지인이 급하게 입금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원래 저장된 번호로 직접 통화하거나 가족 간 미리 정해둔 ‘비밀 암호’로 본인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내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시티즌코너 등 피싱탐지 앱을 미리 설치해 두어야 한다.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앱 설치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지체 없이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로 신고하길 당부드린다.

김제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박재원

‘유령 연구원’ 의혹에 부당해고까지…전북대 바로 세워라

전북대학교가 국정감사에서 연구비 부정 집행 의혹과 공익제보자 부당해고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12년 연속 청렴도 평가 하위권이라는 불명예까지 드러났다.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학의 도덕성과 행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국감에서 제기된 이른바 ‘유령 연구원’ 의혹은 충격적이다. 실제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연구원에게 15개월 동안 3,504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됐다는 것이다. 함께 근무했다는 직원들조차 해당 연구원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대학의 연구비 관리·감독 체계가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부 제보자가 해고됐다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했다는 사실이다. 해고가 제보에 대한 보복이었는지는 철저히 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정 의혹을 알린 직원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만으로도 대학의 공익제보자 보호체계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목소리가 위축되는 조직에서 투명한 행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연구비 집행 문제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한국연구재단이 약 11억5,000만 원의 사업비에 대해

추가 증빙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할 이유가 된다. 물론 추가 소명 요구가 곧 부정 집행의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학은 의혹을 해소할 객관적인 자료와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빠아픈 대목은 청렴도다. 전북대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2년 동안 4등급 8차례, 최하위인 5등급을 4차례 받았다. 단 한 번도 상위 3개 등급에 진입하지 못했다. 일시적인 실수나 특정 구성원의 일탈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록이다. 대학은 그동안 무엇을 개선했으며, 반복된 경고 앞에서 어떤 책임을 졌는가.

국립대학의 연구비는 국민의 세금이다. 그 집행에는 엄격한 책임과 투명성이 따라야 한다.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대학 집행부는 수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 관리체계의 허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학의 명에는 화려한 연구 성과나 외형적 성장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공정한 인사, 투명한 회계, 내부 비판을 수용하는 조직문화에서 비롯된다. 전북대는 이번 국감을 일회성 질책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오늘의시

두 사람 / 곽재규

자전거 두 대가
나란히 꽃길을 지나갑니다.
바퀴살에 걸린
꽃 향기들이 길 위에
떨어져 반짝입니다.

나 그들을
가만히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아는 하늘의 길 하나
그들에게 일러 주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불러 놓고 그들의 눈빛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는 길보다
더 아름다운 길을 그들이
알고 있을 것만 같아서
불러서 세워 놓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인 약력 : 1954년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대 국문학과와 숭실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사평역에서’가 당선돼 등단했다. 시집으로 ‘서울 세노야’, ‘참 맑은 물살’ 등이 있다. 동화집 ‘아기 참새 찌꾸’, ‘낙타풀의 사랑’ 등을 냈다. 1992년 제10회 신동엽 창작기금을 받아 시집 ‘참 맑은 물살’을 펴냈으며, 동서문학상을 수상했다. 오월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순천대 명예교수를 지냈다.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2021년 10월01일 화/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말간 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회장 신영배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가정에서'에너지 소비효율 향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구를 살려요!

고효율 가전 제품
사용하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

대기전력 차단하기

TV전원 끌 때
셋톱박스 전원도 함께
끄기



손해를 심하던 손으로, 햇살을 심하다

부안 하서면 청년농업인 지철민 씨 애플망고 농장 '망고로움'

비닐 지붕에 걸려진 햇살이 연둣빛 새순 위로 내려앉은 오후. 전북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의 애플망고 농장 '망고로움'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잎을 들여다본다.

전북농업기술원 권택 농촌지원과장과 농장의 주인, 청년농업인 지철민(41) 씨다. 잎맥 하나, 가지 하나를 짚어 가는 손길 사이로 이 농장이 걸어온 시간이 천천히 펼쳐졌다.

■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기까지

지 씨는 10년 넘게 손해보험사에서 손해사정 일을 했다. 남의 손실을 숫자로 환산하는 나날은 안정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물음표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회사의 일부가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서두르지 않았다. 기후변화로 재배지가 북상하는 아열대 과수에서 가능성을 읽었고, 2023년 휴직계를 내고 충남 금산의 선도농가 '뜰애'에서 1년을 배웠다. 이듬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선발되며 부안에 뿌리를 내렸다.

■ 기다리지 않기로 한 농부

약 3,000㎡(900평) 하우스에는 레드골드 드레곤과 어윈 810주가 자란다. 눈길을 끄는 건 나무의 나이다. 어린 묘목과 8년생 성목을 일부러 섞어 들였다.

“과수는 시설을 갖춰도 곧바로 수익이 나기 어렵습니다. 나무가 다 크기를 기다리기보다, 제 농장에서 꽃을 올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처음부터 확인하고 싶었어요.”

열매를 일찍 달면 나무의 생장이 더뎠을 수 있다는 걸 그도 안다. 그럼에도 키우는 일과 증명하는 일을 함께 짚어지는 쪽을 택했다. 부안군 아열대과수 도입 시범사업으로 들인 냉난방기와 다겹보온 커튼이 그 선택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

■ 두 번째 여름, 600kg의 대담

첫해 수확은 200kg 남짓이었다. 그리고 올여름, 나무들은

600~700kg으로 대답했다. 열매 대부분이 400g을 넘길 만큼 컸다. 1kg 상자에 두 알이 들면 5만 원, 세 알이면 4만5천 원, 네 알이면 3만5천 원. 공판장에는 내지 않는다.

“물량이 몰리면 값이 흔들리잖아요. 제 손으로 낸 길로만 팔 생각입니다.”

■ 카페는 망고로 가는 오솔길

그 길의 입구는 먼 소재지의 작은 카페다. 첫 수확에 맞춰 문을 연 카페는 솔직히 커피로 돈을 버는 곳이 아니다. 망고가 없는 계절엔 매출도 크지 않다. 대신 여름이면 제 망고로 만든 스무디와 라떼가 사람을 부르고, 한 잔에 반한 손님이 망고 상자를 들고 간다. 자연스레 들어온 문의로 체험도 몇 차례 열었고, 예약으로 모인 연락처는 내년 수확 소식을 전할 씨앗이 됐다.

■ 현장에서 건넌 한마디

권택 과장은 다가올 겨울부터 쟁겼다.

“열대과수는 겨울 온도를 잡는 것이 곧 경영입니다. 화분 재배라면 추울 때 나무를 한쪽으로 모아 데우는 공간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요. 기후변화는 위기이지만 준비한 농가에는 기회가 됩니다. 청년농이 뿌리내릴 때까지 현장에 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망고처럼, 천천히 그러나 깊게

지 씨의 다음 목표는 내년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고, 하우스를 한 동 더 세워 두 번째 농장을 꾸리는 것이다. 망고는 서둘러 따면 끝내 제맛을 내지 못한다. 나무 위에서 충분히 익어야 비로소 향이 깊어진다. 도시의 책상을 떠나 흙 위에 선 한 사람의 인생도 지금, 그렇게 익어 가고 있다.

/이상훈 기자

